

SERIES OVERVIEW

THE LETTER TO THE ROMANS

STRENGTHENED

BY THE GOSPEL



st bar't's

Scripture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개요(overview)

로마서, 곧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래 다소의 사울로 알려졌던 바울은, 한때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 공동체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르치고, 격려하며, 때로는 바로잡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하며, 그들의 기도적 후원을 요청하고, 또한 그들을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이자 교사이며 목회자인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기를 깊이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로스너(Brian Rosner)는 자신의 로마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와 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 주는 궁극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다. 성경 가운데서도 이 책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드물다. 이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로마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전한다(로마서 15:13).¹

이 열여덟 번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처음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것과 동일한 소망으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곧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며,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배경 (Context)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의가 있으나(대체로 주후 57-58년경,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로 추정됨),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점에는 학문적 합의가

¹ Rosner, “Strengthened by the Gospel: A Theology of Romans”, p.1.

이루어져 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다. 바울은 장차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 (Outline)

이 시리즈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두 학기에 걸쳐 진행), 그 사이에 3주간의 짧은 간격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즈 전체 개요의 두 번째 자료는 별도로 제공된다.






Part A

Week 1	복음으로 굳건해짐	로마서 1:1-17
Week 2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1:18-32
Week 3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로마서 2:1-16
Week 4	종교만으로 충분치 않다	로마서 2:17-3:20
Week 5	복음의 핵심	로마서 3:21-31
Week 6	행위가 아닌 믿음	로마서 4
Week 7	하나님과의 화평	로마서 5:1-11
Week 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5:12-21
Week 9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	로마서 6

Part B

Week 10	율법과 죄	로마서 7
Week 11	성령 안에서의 삶	로마서 8:1-17
Week 12	미래의 영광 & 현재의 희망	로마서 8:18-39
Week 13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로마서 9
Week 14	복음의 선포	로마서 10
Week 15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로마서 11
Week 16	복음으로 빛어지는 공동체	로마서 12
Week 17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복음 중심의 삶	로마서 13-14
Week 18	복음 안에서의 동역과 연합	로마서 15:1-16:27

General Resources

- *Read:* “Strengthened by the Gospel” by Brian Rosner. 
- *Read:* “The Story of God Bible Commentary: Romans” by Michael Bird.
- *Read:* “Into the Heart of Romans” by N. T. Wright. 
- *Read:*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by F. F. Bruce. 
- *Read:* “The Message of Romans” by John Stott. 
- *Read:* “The Epistle to the Romans” by Leon Morris. 
- *Read:* “Romans 1-7 for You” by Timothy Keller.
- *Watch:* “Romans” by the Bible Project:
<https://bibleproject.com/guides/book-of-romans/>



St Bart’s Resources (including for families)

For the series overview, weekly sermons, small group material, and weekly children’s curriculum, visit: stbarts.com.au/sermon-series/gospel

- *For 8-12 year olds:* “Paul’s Big Letter: A Kid-Friendly Journey through the Book of Romans ” by J. Aaron White. 

ADAM LOWE

St Bart’s Anglican Church, April 2026

-  Summaries by *Adam Lowe (AL), Amy Norman (AN), Daniel Rouhead (DR), Justin Lai (JL)*
-  Available to borrow from the St Bart’s Church Library (stbarts.com.au/library)

how to use this series overview

For each week in the series, a Bible reading, “the big idea”, some reflection questions, and a prayer is provided.

- **PRAY**

Begin with prayer, for example:

Gracious God, please enlighten our minds, enliven our hearts, and shape our wills according to your life-giving Word. In Jesus' Name, Amen.

- **READ from the Bible**

Read the part of the Bible that we are focusing on for that week. Some key verses (from that reading) are also printed—you might even like to memorise these!

- **REFLECT**

Read the ‘big idea’ and use the questions to reflect on the Bible passage. This will help prepare for the sermon and the following week’s small group questions (provided on the St Bart’s website).

- **PRAY**

Each day a prayer is provided that you may like to use. Of course, you need not be limited to this prayer.

Week 1

복음으로 굳건해짐- 로마서 1:1-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읽기 롬 1:1-17

목적: 로마서의 서두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후의 내용에서도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지만, 이 첫 부분에서 이미 복음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바와 같이). 둘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셋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보여 줍니다. 곧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믿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을 이루는가(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로마의 성도들 또한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즉, 그들 역시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히 아는 데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을 삶 가운데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며,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2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 롬 1:18-32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5

읽기: 롬 1:18-32

독상. 상상해 보십시오. 온 도시가 온갖 악과 불의, 탐욕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살인, 다툼과 속임수,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살아 있는 악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극단적인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와 이 세상이 처하게 되는 실제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창조 세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예배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보다, 형상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상을 직접 섬기는 사람은 적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 권력, 성공과 지위, 사랑이나 가족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두려운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24절), 부끄러운 욕심에 맡기셨으며(26절), 결국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두셨습니다(28절).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이 없는 세상의 방향은 결국 어둡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디에서 악을 보고 있습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3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롬 2:1-16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롬 2:2-3

읽기: 롬 2:1-16

목상.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같지는 않아!” 로마서 1장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16절은 시선을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한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지만, 정작 내 마음의 깨어짐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3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모습이나 비교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4절)을 보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따라서 그 인자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외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5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 나는 혹시 다른 사람과 나의 “도덕적 모습”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4

종교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롬2:17-3:20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2)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19-20

읽기: 롬 2:17-3:20

묵상. 바울은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주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자신감을 두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바울은 단지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과연 그들이 말로는 높이는 그 율법을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외적인 특권이 곧 내적인 의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종교적 지위 위에 세워진 거짓된 안전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할례, 율법, 그리고 혈통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순종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표식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러한 불일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위선은 개인을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밝혀 주며,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5

복음의 핵심- 롬3:21-31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2-24

읽기: 롬 3:21-31

목상.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의 현실을 낱알이 드러낸 후, “이제는”(But now)이라는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의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우리의 본능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성과와 자기 의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복음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이 죄를 온전히, 그리고 공의롭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거룩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고, 자비는 한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깊은 겸손과 참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 진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사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빚어져 갑니다.

- 나는 어디에서 여전히 나의 노력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 나는 은근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6

행위가 아닌 믿음- 롬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4-5

읽기: 롬 4

목상. 누군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그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났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으며,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유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3절)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전환이 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은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노래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민족이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 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7

하나님과의 화평- 롬 5: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2)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1-2

읽기: 롬 5:1-11

독상.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칭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내용들이 그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1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으며(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2절).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3절),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5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8절),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1절).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확실한 소망에 고정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환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이루며, 그 성품은 다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을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주어진 여러 은혜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소망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롬 5:12-21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8-19

읽기: 롬 5:12-21

목상. 바울은 이제 죄와 은혜의 크고 넓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죄와 죽음의 기원을 한 사람, 곧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단순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 곧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담”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연결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곧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직면하기 어려운 현실은 동시에 더 큰 소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정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행위는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는 단순히 죄를 상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져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율법도, 죄도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와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9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 롬 6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롬 6:11-12

읽기: 롬 6

묵상. “자유”란 아무 제약도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만(6, 12, 14, 16, 17, 19,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7, 11, 18, 22절), 은혜로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2-5절). 죄의 지배 권세는 단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12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속은 “의”라는 새로운 주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6:16-18). 이 은혜로운 주인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며(6:19-22), 결국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6:23). 은혜는 게으르게 머물러도 되는 허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의이신 하나님입니까?

기도. 주님,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